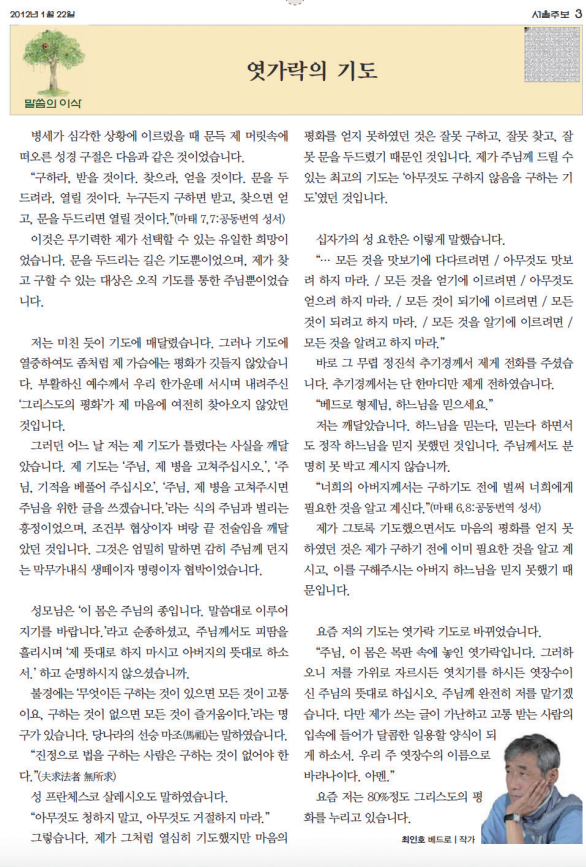


응답하라 1978

최인호 작가와 서울주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는 천주교 서울대학교구의 공식 주간 소식지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본당 단위로 발행되었고, 주로 전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1978년 홍보 주일을 맞아 교구 통합 주보인 ‘서울주보’가 탄생하였습니다. ‘서울주보’는 한때 30

만 부 가까이 발행되어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주간 매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정부 교구가 분할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쇄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주보는 시간을 지나며 계속 변화했고 교구의 전체 신자를 대상으로 복음 해설, 신앙 나눔, 교리교육에 교회 소식까지 전달하는 대표적인 홍보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서울주보는

2336호를 발행 중입니다.

서울주보는 신자들에게 열독률이 높은 매체로 유명합니다. ‘서울주보’에서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말씀의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이삭’ 코너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故 최인호(베드로) 작가님의 글을 1990년부터 실었던 것은 서울주보 역사에서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님을 통해 서울주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데 이견